

광주FC ‘화끈한 공격 축구’ K리그1에서도 통했다

아사니, 시즌 1호 해트트릭

엄지성·이희균도 각 1골씩

인천에 5-0 승…상위권 진입

광주FC가 아사니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올 시즌 홈 첫승을 대승으로 장식했다.

광주는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아사니, 엄지성, 이희균의 득점을 앞세워 5-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승점 6점(2승2패)을 기록, 2연패 탈출과 함께 단숨에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이정효 감독이 맡한 ‘공격축구’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 최전방 투톱으로 내세운 아사니와 이희균의 득점력이 빛났다. 선취득점을 가져간 광주는 끝까지 인천을 몰아붙이면서 5골을 터트려 경기장을 찾은 2,812명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아사니는 K리그 시즌 1호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광주는 이른 시간 선제골을 가져가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갔다. 전반전 초반 62%의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인천을 압박했고, 전반 8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사니가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인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광주는 더욱 기세를 올렸다. 이희균과 엄지성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 광주는 전반 19분 정호연의 크로스를 받은 엄지성이 추가골을 넣으면서 2-0으로 앞서나갔다.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광주FC 아사니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전반 추가시간 위기도 있었다. 골키퍼 김경민이 인천 김보섭과 충돌했고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하지만 김경민이 인천 에르난데스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전반을 실점 없이 마쳤다.

광주는 후반전에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희균과 아사니가 있었다.

후반 5분 엄지성의 패스를 받은 이희균이 박스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인천의 골문을 갈랐다. 이희균은 지난 2021년 10월 24일 수원FC전 이후 2년여 만에 골맛을 보며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이어 아사니가 다시 한번 불을 뿜었다. 후반 23분 인천 수비진의 뒷공간을 노려 왼

발 발리슛으로 추가골을 뽑았고 3분 뒤에는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을 왼발로 잡아 차 인천 골문 구석에 꽂아 넣고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날 아사니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8일 폴란드와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을 치를 알바니아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사니의 A대표 합류는 처음이다. 아사니는 그 기쁨을 K리그 그라운드에서 골 잔치로 풀어냈다.

후반 추가시간에도 인천에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광주는 5-0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광주는 A매치 휴식기를 보낸 뒤 4월 1일 수원FC와 홈경기를 갖는다.

/조혜원 기자

이정효 감독 “준비한 대로 밀고 나간 결과”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따라온다.”

‘광주만의 축구’를 강조한 이정효 광주 FC 감독이 올 시즌 홈 첫승을 대승으로 이끈 뒤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정효 감독은 인천전 종료 후 “준비한 대로 계속 밀고 나가자고 주문했다. 선수들에게 ‘결과에 만족하지 마라. 과정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결과도 따라온다’고 말한다. 자신 있는 플레이로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고 잘 마무리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나가기 전에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마다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공략법을 가지고 나간다. 전반 2-0에서 실점했으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김경민이 아니었으면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혔다.

해트트릭을 달성한 아사니에 대해서는 “대표팀으로 선발된 아사니에게 (선제골 후) 아왕이면 2골 더 넣어서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팀에게 선물을 준 것 같다. 추진력이 좋은 선수라서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좋은 골이 나왔고 정말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첫 골을 신고한 이희균과 엄지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이희균은 기술과 몰입이 좋은 선수지만 아직 소극적인 면이 있다. 파이널 써드 지역(광주 공격 지역)에서 소극적인데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인천전 골은 이희균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지성은 경기가 잘 되고 본인이



이정효 광주FC 감독이 18일 인천전에서 시즌 첫골을 기록한 이희균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골을 넣으면 처지는 경향이 있다. 드리블과 슈팅을 할 때 미들지역에서 터치가 많아진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더 큰 무대에 나아가기 위해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

페퍼저축은행 시즌 5승 ‘유종의 미’

박경현 26득점 폭발

기업은행 3-2 제압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최종전에서 창단 최다승(5승)을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8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IBK기업은행과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2(21-25 25-10 12-25 25-20 15-13)로 승리했다.

창단 첫 시즌인 지난해 3승(28패·승점 11)을 남겼던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두 번째 시즌을 5승(31패·승점 14)으로 마무리 지었다. 지난 시즌이 코로나19로 조기 종료해 이번 시즌보다 경기 수가 적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확연히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대마 젤리 소지로 출장이 정지된 외인 니아 리드의 부재 속에 박경현이 양 팀 최다인 26득점(공격성공률 42.4%)을 책임졌고 이한비와 최가은이 각각 14득점, 8득점으로 고군분투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는 대칼코마니 같은 경기 양상이 펼쳐졌다.

기업은행과 팽팽한 접전을 펼친 끝에 1세트를 21-25로 내준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에서 펄펄 날았다. 2세트 초반 이한비와 박연화, 박사랑의 고른 득점으로 상대팀 코트를 무력화시켰다. 일찌감치 리드를 잡은 페퍼저축은행은 박연화의 오픈 공격으로 13점 차 20점 고지를 선점했고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는 상대 표승주와 김수지의 공격에 막히면서 12-25로 내졌으나 4세트에서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페퍼저축은행은 이한비와 박경현의 연속 공격에 상대 범실을 묶어 20-11로 크게 앞섰다. 이후 상대 수비가 흔들리면서 상대 산타나에게 연속 실점했으나 일찌감치 리드를 잡은 페퍼저축은행은 이한비의 킥오픈으로 4세트를 가



지난 18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도드람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박경현이 공격을 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져왔다.

최후의 승자는 페퍼저축은행이었다. 8-8 동점 상황에서 뒷심을 발휘, 최가은, 박경

현의 득점과 상대 범실로 앞서갔고 박경현의 오픈 공격으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조혜원 기자

양현종 시범경기 첫 등판 무실점 호투

3⅓이닝 3K…KIA, 8-1 승

소크라테스·변우혁 홈런

KIA 타이거즈 양현종(35)이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호투를 펼쳤다.

양현종은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3⅓이닝 동안 1피안타 3삼진 무실점으로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이날 경기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정을 마친 뒤 복귀한 양현종의 올해 첫 시범경기 출장이다.

양현종은 두산 타자들을 상대로 45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26개), 커브(2개), 슬라이더(6개), 체인지업(11개)을 섞어 던졌다. 최고구속은 144km를 기록했다.

양현종은 첫 이닝을 단 12개의 공으로 삼자범퇴 처리했다. 1회초 선두타자 김대환을 삼진처리한 양현종은 후속타자 로하스와 허정민을 각각 땅볼, 3루수 직선타로 돌려세웠다.

2회 초에는 선두타자 김재환에게 안타를 내줬다. 이어 신성현 땅볼 때 2루 진루를 허

용하면서 1사 2루 위기에 놓였으나 강승호와 김민혁을 각각 삼진, 땅볼로 잡았다.

3회 초는 두산 타자들을 상대로 삼자범퇴 처리하며 깔끔하게 정리했고 4회 선두타자 로하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후 마운드를 내려갔다.

김종국 KIA 감독은 “이번 두산전의 마운트 운용은 양현종과 이의리의 컨디션 점검이 핵심이었다”며 “두 투수 모두 계획된 투구수를 채웠다. 양현종은 좋은 투구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제몫을 다 해줬고, 이의리의 경우 제구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보이긴 했지만 남은 기간 잘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양현종도 “제구와 투구수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투구를 했다. 구속에서 부족한 감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아직 시범경기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개막에 맞춰 페이스를 끌어올리려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석에서는 소크라테스와 변우혁이 1홈런을 포함해 2안타로 활약했고 김도영도 멀티히트를 때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조혜원 기자

광주도시공사, SK슈글즈에 24-30 역전패

광주도시공사가 SK슈가글라이더즈에 역전패를 당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SK슈가글라이더즈와 경기에서 24-30(14-12 10-18)로 졌다.

2연패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삼척시청(13승 1무 3패·승점 27)에 선두를 내주고 2위(12승 2무 3패·승점 26)로 내려앉았다. 반면 SK슈가글라이더즈는 승점 2점을 적립하며 부산시청군단을 제치고 3위(11승 2무 4패·승점 24)에 올랐다.

이날 정현희가 6득점(어시스트 5개) 공격포인트 11개를 성공시켰고 손민지가 5세이브(방어율 50%)를 기록하며 분전했으

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반전은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광주도시공사가 전반 종료를 앞두고 역전에 성공했다. 12-12 동점 상황에서 골키퍼 박조은이 후반 27분 상대 유소정과 송지은의 연속 공격을 막아내면서 상대공격을 무력화시켰다. 1분 뒤에는 김지현과 이슬기의 연속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14-12로 마쳤다.

후반전 초반까지 한점씩 주고받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으나 강경민의 득점 침묵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후반 9분 16-16 팽팽한 상황에서 내리 3실점한 광주도시공사는 이슬기와 정현희가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으나 리드를 완전히 내줘 24-30으로 고개를 숙였다. /조혜원 기자